우리농업 농촌 이렇게 가야합니다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지속적 추진

오늘날 농어촌 문제는 임시 방편적인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얼키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근원적으로 풀어나갈때 비로소 우리 농어촌은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 설수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제공〉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 시책방향은

1、농림수산업 구조개선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①기술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확보

우리 농수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수용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일본의 신농정대책에서도 다양한 후계자(농업경영체)의 육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농업에서 인력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농어민후계자 선정인원을 매년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91년: 1천5백명)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후계자로 선정될 때 1회에 한하여 지원하였습니다만 92년부터는 3년이상 경과된 우수후계자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금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의 영농정착 성공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한 기술·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자대학을 설립, 작목별로 재배기술·경영·가공·포장 등 일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농업기술과 경영기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농어민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업농어가중 일정수준의 전문기술과 영농기법을 소유하고 있는 영농인에게는 「농업사」「어업사」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농인으로서의 긍지와 성공감을 고취하고 농어업사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②집단화된 우량농지의 생산기반 조기완비와 유휴농지 개발

경쟁력 있는 농업은 생산비 절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하려면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가 농사짓기에 편리하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농업생산기반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92-2001년간 논·밭 포함 1백10만정보에 대하여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토확장 등 생산기반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전천후 농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의 경우 대형기계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개발구획을 현재 6백~1천2백평에서 3천평 이상까지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에 대한 지하배수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용수개발은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을 포함한 농어촌용수로 종합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어 기계화가 어려운 계곡의 논이나 산기슭의 밭들은 점점 유휴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유휴농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좁은 국토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휴농지를 초지, 과수원, 공장용지, 택지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농촌의 소득으로 연결하고 한계농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를 관광농원, 주말농장, 체험실습농원, 관광목장 등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③영농규모의 확대

농어촌 경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종사자의 소득이 타산업 종사자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농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업도 완전기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수준보다 3~4배 이상 경영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농어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즉 농지소유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가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한 농지매매사업지원을 91년 2천5백억원 수준에서 연간 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현행 3정보의 농지소유 상한을 20정보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기임차료를 일시에 선불로 지원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등 협업영농을 통하여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가를 위하여는 협업영농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법인세 감면등 각종 세제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산되어 있는 여러 농지를 한

◇한계농지 활용 방안은 3면에 계속◇

〈정예 인력 육성 방안〉

〈예비단계〉	〈경영착수단계〉	〈정착단계〉	〈성숙단계〉
4H, 농고등	후 계 자	전 업 자	선도농어가
(종합지원)	(추가지원)		(특별지원)
○ 예비후계자 지정 (농업경영실습)	○ 연 1만명이상 후계자 선정 (기술,자금,판로 종합지원) ○ 3-5년후 경영평가 ○ 우수후계자 추가지원 (5천만원 한도)		○ 선도농어가에 대한 1억원 한도의 특별지원 ○ 후계자등의 경영 교육담당

連載 栽培教室

92신규회원을 위하여…

일당귀 (日當歸)

1、학명 : Ligusticum acutilobum SiEb et Zucc

2、과명 : 미나리과 Apiaceae

3、성분 : 정유, Bergapten 등이 함유

4、용도 : 빈혈증, 진통, 진정, 강장, 통경, 부인병약

5、사용부위 : 근(根)

6、재배법

가、적지

○기후 :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나 따뜻한 중남부지방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토질 : 표토가 깊고 배수가 잘되는 식질양토, 사질양토가 좋고 약간 경사진 곳이 더 유리하다.

나、일본산과 우리나라 산으로 분류한다.

다、번식 : 종자 직파와 육묘재배로 한다.

라、재배 및 육묘이식 재배요점 : 직파재배가 있는데 육묘이식 재배가 유리하다.

○직파법 : 본밭에 직접 파종하기 위하여 비옥한 땅을 선전하여 가을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경 파종을 하여 발아가 되지 않게 그대로 겨울잠을 자고 봄에 발아가 되게 하는데 밭을 정지 작업하기 전에 3백평(10a)당 두엄 1천5백kg, 잘 썩은 계분 80kg, 복합비료(17-21-17) 2포, 초목회 60kg, 깨묵 2백kg을 밑거름으로 넣고 밭을 2~3회 경운 작업하여 1백20cm두둑을 만들고 45cm간격을 띄우고 골을 켜고 종자를 파종후 흙을 덮는다. 흙덮기가 끝나면 짚이나 낙엽들을 덮어 준다. 봄에 파종해도 가능하나 발아율이 떨어지므로 모래와 종자를 잘 혼합하여 노천매장하였다가 해동과 함께 본밭을 준비하여 파종하면 가을 파종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백평(10a)당 종자 소요는 5ℓ이다.

○육묘이식재배 시기 : 가을 10월하순~11월상순, 봄 3월 중하순. 당귀이식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육묘상 설치할 밭선정이 중요하다. 3백평(10a)당 5~7평 정도의 흙살이 부드럽고 표토가 깊은 부식질이 풍부하며 배수가 양호한 밭을 선정하여 기비를 넣지 말고 그대로 경운작업하여 1백20cm의 두둑을 만들고 흙을 곱게 만들어 덩이흙을 없애고 골을 켜지 말고 평두둑에 종자 3리터를 고루 밀생되게 파종하고 흙을 덮는다. 흙을 덮은 후에 짚이나 낙엽을 덮어 주고 발아가가 되면 걷어주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묘판 생육기에 중거름은 시비는 금하면 빽빽하게 가꾸었다가 그해 가을에 정식하면 된다. 정식시기에 묘의 직경이 0.8cm이상 되는 묘는 꽃대가 나와 약재로 못쓰게 되니 0.4cm~0.8cm의 이하의 우량묘로서 뿌리가 대체로 곧게 자란 묘만 골라 식재하면 우량품이다. 특히 묘의 직경이 1.0~1.1cm이상 되는데 묘는 꽃대가 많으므로 싹오려 내기하여 식재해야 한다. 큰묘를 그대로 식재하면 꽃대가 올라와서 약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3백평당(10a) 묘종소요는 6천주 정도이다.

마、정식 : 정식시기는 가을 10월 중하순이며 봄에 식재할 경우 3월중하순이나 가을에 식재하는 것보다 생육이 약하다. 정식전 밭을 전면 갈아엎어서 1백20cm의 두둑을 만들고 45cm간격으로 골을 좁게 깊게 켜고 묘와 묘사이 15~20cm간격으로 선별된 묘를 곧게 세워 싹눈이 위로 바르게 세워 보이지 않도록 식재하고 싹눈이 보이지 않게 흙을 덮는다. 묘의 크기보다도 다소 크게 쇠꼬챙이로 구멍을 뚫어 식재 하는 방법도 있다. 가을에 식재시에는 식재후 짚이나 두엄을 덮어서 보온해야 되지만 봄에는 필요 없다.

7、시비 및 관리

봄 해빙이 되면 가을에 파종한 것이나 혹은 육묘 이식 재배한 포장에 피복물을 제거하고 발아가 끝나면 본엽 2~3매 때부터 솎음질을 하여 3~4매가 될때 포기사이 15cm정도로 남기고 고루 솎아주어 제자리에 세워 가꾼다. 중거름은 생육 상태를 보아 김메기와 겸하고 7~8월에 가서 육묘이식 재배일 경우 꽃대가 올라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뽑아 버리고 중거름은 8월20일 처서 이후부터 시비하여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좋다. 직파한 것도 당년에 거름을 충분히 주어 가꾸면 수확량을 올릴 수 있다.

8、병충해 방제

병충해로써는 진딧물, 붉은 응애등의 피해가 있으나 수시로 방제약을 뿌려 주면 구제된다. 특히 응애류는 성장이 왕성한 7~8월경에 잎뒷면 잎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방약을 산포하는 것이 좋다. 병해로써 균핵병과 탄저병이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가뭄이 심하였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배수가 잘 되지 않을 때 발생되므로 배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슬이 내린 아침에 짚재 등을 뿌려거나 살균제를 뿌려 미리 방제해야 하며 이미 병이들어 심한 것은 뽑아서 없애 버리는 것이 좋다.

9、수확 및 조제

당귀의 수확은 가을 10월 이후부터 지상부를 제거하고 뿌리가 절단되지 않도록 캐어서 당귀 노두 부근의 잎, 줄기를 되도록이면 가까이 절단하여 물에 깨끗이 씻어 건조실이나 햇볕에 건조한다. 건조가 절반쯤 되면 몸통이 부드러울 때 뿌리 부분을 곧게 펴고 만져서 적당한 크기로 단을 지어 완전 건조시켜 30kg단위로 포장을 만들어 상품으로 출하한다. 당귀는 건조가 잘되고 굵고 향기가 높으며 부드러운 것이 우량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3백평당(10a) 생근으로는 2천1kg(3천3백60근)건재로는 7백20kg(1천1백52근) 정도가 수확된다.

※유의할점

○당귀묘는 굵은 것을 선택하면 안된다.(꽃대가 올라옴) 약 0.8cm이하로 곧게 뻗은 것이 좋다.

○진딧물과 붉은 응애를 방제 해야한다. 특히 성장이 왕성한 6、7、8월경 잎 뒷면에 발생 여부를 잘 관찰해야 한다.

○균핵병이 걸려서 심한 것은 뽑아 없애고, 이슬이 젖었을 때 짚재나 살균제약을 산포하여 방제한다.

○수확후 깨끗이 씻고 건조를 잘해야 한다.

○파종후 짚을 덮어주고 발아후 거두워 준다.

○꽃대가 올라온 것은 뽑아 버린다.

○김을 맨후에는 반드시 데브리놀이나 스텀프를 뿌려서 풀이 나오지 않게 한다.

○산성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장마후에는 미네랄을 살포하여 해독을 해줘야 잘자란다.

◇일당귀